“코로나 백신 접종해도 마스크 써야”

앞으로 최소 1년은 착용해야
세계 최초 접종 영국 흥분 자제령
보건장관 철저한 개인방역 당부

영국이 8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접종을 시작하면서 크게 고무된 분위기지만, 정부는 앞으로 최소 1년간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것이라면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영국 정부의 최고과학자문관인 패트릭 발란스 경은 백신이 전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접종되더라도 당분간 마스크 착용 등의 바이러스 통제 조치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발란스 경은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거나 바이러스 증식을 완전히 막는다는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면서 “경계 강도를 낮춰서는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감염병 전문가들도 다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더라도 내년 겨울까지 최소 1년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영국 정부도 백신 접종이 팬데믹(감염병의 대유행) 사태의 ‘출구’를 제공하기는 했지만 당분간 방역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맷 행콕 보건장관은 이번 성탄절 전까지 수백만 명의 바이러스 취약층이 화이자 백신의 1차 접종분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도 두 번째 접종을 해야 하는 1월까지는 바이러스에서 보호 받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이 대량 접종을 시작한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은 1차 접종을 하고서 3주 뒤에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행콕 장관은 백신 대량접종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정도와 전파 경로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면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망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영국 정부와 전문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조치의 철저 준수를 재차 강조하는 것은 접종 시작 이후 사회적으로 크게 고무된 분위기로 인해 방역 주의가 느슨해질 것을 우려해서다. 백신 개발이 초고속으로 이뤄지다 보니 효능과 바이러스 전파 차단능력 검증이 아직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확실성’이 있다. 영국 정부는 접종 시작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의 통제조치를 완화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존 레넌 타계 40주년…뉴욕 추모공간 조화 영국의 전설적 록그룹 비틀스의 리더 존 레넌의 타계 40주년인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마련된 추모공간 ‘스트로베리 필즈’에서 팬들이 가져다 놓은 조화와 각종 물품이 보인다. 레넌은 1980년 12월 8일 뉴욕 맨해튼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정신질환자 마크 채프먼의 총격을 맞고 4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연합뉴스

“현재의 백신 접종 계획으로는 내년 늦봄까지 확산세 못 꺾어”

CNN, 백악관 보고서 입수 보도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는 8일(현지시간) 백신을 접종해도 내년 늦봄까지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NN 방송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백악관 TF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TF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백신 접종 계획으로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거나 입원환자와 사망자를 많이 감소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확산의 억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미국민 1억명이 완전한 면역 반응을 보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은 늦은 봄까지 진행될 것”이라며 “백신 접종자들의 면역력이 몇 달간 지속돼야만 사망자와 입원환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 국민에 무료 접종”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하겠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보건부 산하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의 승인을 받는 코로나19 백신을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접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할 필요는 없다”며 접종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발언은 상파울루주 정부가 내년 1월 말부터 중국 시노백(Sinovac)의 코로나19 백신 ‘코로나백’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에 맞춰 나왔다.

주앙 도리아 상파울루 주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 수석대표(가운데)가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협상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영국과 EU 양측은 타결 시한을 3주 앞두고 협상이 붕괴 위기에 있다고 경고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막판 합의를 타진하기 위해 금명간 직접 회동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영국-EU 브렉시트 협상 ‘노딜’ 위기

무역협상 등 연내 타결 어려울 듯
존슨·폰데어라이엔 만나 돌파구 모색

유럽연합(EU)과 영국 간 무역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노 딜’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EU 행정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직접 만난다.

8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9일 저녁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만나 결렬 위기에 놓인 양측간 미래관계 협상 문제를 논의한다. 영국이 지난 1월 31일 EU를 탈퇴함에 따라 양측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로 설정된 전환 기간 내에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하지만 양측은 공정경쟁 여건 조성, 어업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발생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와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영국은 합의 실패로 대유럽 수출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다급해진 영국은 유럽 회원국과 개별적인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유럽 지도자들은 존슨 총리가 지도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존슨 총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아주 몹시 어려운 순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영국은 존슨 총리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간의 만남을 통해 진전 가능성이 엿보일 경우, 며칠 내로 협상을 재개하도록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영국 관리는 협상 진전을 위해 ‘정치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존슨 총리를 초청하기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상의해 대영국 견제 정책을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테슬라 CEO 머스크, 소득세 없는 텍사스로 이사

20년 터전 캘리포니아 떠나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20여 년간 일과 생활의 터전이자 실리콘밸리의 고향인 캘리포니아주를 떠나 소득세가 없는 텍사스주로 이사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머스크는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이곳(캘리포니아에서)나의 시간을 대단히 잘 쓴 것은 아니다”라면서 최근 텍사스로 이주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머스크가 텍사스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과학 교육과 연구에 기부금을 내는 ‘머스크 재단’ 주소지까지 텍사스로 옮기면서 머스크가 이사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이어졌지만, 본인 입으로 텍사스 주민이 됐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20년 넘게 살았고,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의 팔로알토에 테슬라 본사를, LA 카운티 호손에 우주 탐사기업 스페이스X 본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실리콘밸리의 기업 문화와 주 정부의 기업 규제 정책을 비판하며 텍사스로 이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기차 공장 가동중단 조치로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그는 새 보금자리로 텍사스를 선택한 이유와 관련해 전기차 공장 신설과 스페이스X의 차세대 로켓인 ‘스타십’(starship) 개발을 꼽았다. 캘리포니아의 소득세율은 13.3%로 미국에서 가장 높지만, 텍사스는 주 차원의 소득세가 없다. /연합뉴스

미국 연구팀 ‘범용’ 독감 백신 개발…다양한 변종에 효과

광범위한 독감 바이러스 변종에 효과가 있는 ‘범용’(universal) 독감 예방백신이 미국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미국 뉴욕 마운트 시나이(Mount Sinai) 의대의 플로리안 크래머 미생물학 교수팀은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독감 바이러스의 특수 부위 단백질을 이용, 광범위한 독감 바이러스 변종에 효과가 있는 범용 독감 백신을 개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의 독감 백신은 독감 바이러스의 막대사탕처럼 생긴 표면단백질 헤마글루티닌(HA:hemagglutinin)의 돌출한 머리 부분을 이용하고 있다.

이 머리 부분은 둥근 모양이라서 면역체계가 만드는 항체가 결합하기는 쉽지만, 돌연변이를 잘 일으킨다. 따라서 돌연변이를 일으킬 때마다 새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머리 부분이 움직이는 표적(moving target)이라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이 범용 백신은 HA의 머리 부분이 아니고 줄기의 끝부분(stalk end)을 이용한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줄기의 끝부분은 모든 독감 바이러스 변종들이 모양이 거의 같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지원자 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상 임상시험에서 이 독감 백신은 광범위한 독감 바이러스 변종에 “강력하고 폭넓고 오래 가는” 면역 반응을 유발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면역반응은 최소한 18개월 지속됐다. /연합뉴스